

True Peace

天國 10年
天曆 04
2022년 양력 5월





하늘 섭리의 완성, 천원궁 승리 봉헌을 위해 전진하자!

윤영호 세계본부장



하늘부모님의 소원은 태초에 당신께서 이상하셨던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이러한 이상은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든 인류가 염원해왔던 항구적인 평화세계 역시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하늘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녀로 현현하신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이러한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서는 하늘부모님과과의 약속과 참아버님의 유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제1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의 승리 토대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천일국이 안착되었다 함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본연의 종적 참부모이신 하늘부모님으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런 이유에서 참어머님께서서는 “하늘부모님성회”를 선포하시고, 2027년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까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의 승리를 위해 전진 또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올해 2월 기적 같은 한반도 평화서밋의 대승리를 통한 신통일한국 안착의 기반을 조성하시고, 그 토대 위에 2023년까지 천일국의 수도인 이곳 효정천원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께서 안착하실 수 있는 지상천국의 모델을 완성하시고자, 원대한 구상을 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효정천원모델 조성의 가장 중심이 될 하늘부모님의 성소가 바로 천원궁입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완성은 하늘섭리의 완성입니다. 인류역사의 완성입니다. 천정궁이 참부모를 중심한 지성소라면 천지선학원은 중앙청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원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상에 계시는 참부모가 인류를 상대로,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와서 천원궁에서 교육 받고, 사실을 보고, 부모님의 업적을 보고 축복을 통해서 거듭난 자녀가 되어서 지상생활을 알차고 아름답고 실하게 해야 됩니다.”(천일국 7년 천력 6월 2일, 2019년 7월 4일)

천일국의 중앙청이자, 천일국 안착시대 하늘부모님의 본성전인 천일성전, 그리고 천지인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후손만대 상속하고 교육할 천지선학원의 역할을 담당할 천원궁은,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렇기에 참어머님께서 오매불망 천원궁 완공을 위해 정말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으시며 진두지휘하시고 계십니다.

참어머님의 이러한 정성이 있었기에 작년 성혼절 천원궁 상량식을 봉헌했고, 봉헌을 1년 앞둔 지금과 같은 천원궁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자,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원궁의 봉헌은 참어머님의 지극한 효성을 중심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역사적인 건물을 위해 정말 사생결단 전력투구하신 천지인참부모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천력 3월 16일 반드시 천원궁을 승리 봉헌하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CONTENTS



04

권두언

02 하늘 섭리의 완성,
천원궁 승리 봉헌을 위해 전진하자!
윤영호 세계본부장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08 제55회 하늘부모님의 날 및 제63회
참부모의 날 천일국 경배 기념식

12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17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과
오벨리스크 천승탑 제막

19 참부모님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특별오찬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22 '혼돈의 시대,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환영사

26 여성시대가 도래한 섭리의 봄 절기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축하메시지

29 여성들의 집단적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다
문선진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석부회장

참부모님 말씀

04 참부모님 성혼과
'어린양 혼인잔치'
참부모경 제1편 제2장 1절

11 하늘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옵소서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16 크리스털보다 더 맑은
모습으로 그늘진 역사를
청산하고 넘어가자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20 천일국 안착시대에 여성이
앞장서 하늘부모님을 교육하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34 황금기와 같은 이 때
책임을 하여 하늘부모님을
기쁘게 모셔드리자
천지인참부모 주관 세계지도자 특별집회



08

격려사

30 어머니의 마음,
모성적 사랑의 힘으로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

천일국 세계지도자 특별교육 및 천심원 특별정성

32 참부모님 향한
해바라기 같은 지도자들의 정열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36 영적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현장,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ICSG

38 지구환경복원을 위한
과학자들의 해안 모색의 장
문선진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석부회장

ICUS

41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역사 브리핑



참부모님 성혼과 ‘어린양 혼인잔치’

성혼식과 ‘어린양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어린양 혼인잔치’는 참부모님 양위분의 성혼식으로 실현되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 맞추는 것이다. 양위분의 성혼식은 인류역사 종말시대에 제3차 아담으로 온 재림메시아가 그 배필이자 제3차 해와인 성신실체를 신부로 맞아서 하나님께서 참된 인류시조 부부로 축복해 주시는 예식이었다. 잘못 태어난 인류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참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담과 해와가 성장기간 중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

락하여 거짓 부모로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불신당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한 자리에서 참부모님의 성혼식이 거행된 것이다.

본래 인간시조는 선한 부모로서 출발해야 했는데 악한 부모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악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내 사랑과 같이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직계 사랑을 통한 혈족으로서 남아진 아들딸이 되어야 하는

데 그렇게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어린양잔치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신랑으로 와서 하나의 신부를 찾아서 한 기준 위에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여 확고한 목적을 세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세계가 기독교문화권 내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를 맞이하려면 그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참된 아들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왔습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참된 아들 하나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도주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경서 중에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고 들고 나온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원천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은 신부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독생자이지만 신랑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있으니 독생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신랑 신부의 잔칫날이란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 혼인잔치 석상이 에덴동산에서 바라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 나갔으니 인류세계의 종말에서 이 혼인잔치 석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독생자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독생자이고 신부는 독생녀입니다.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양잔치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와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잔치를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독생자와 독생녀로 삼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성혼식 식순에 맞춰 맞절을 하고 계신 참부모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끝날에는 메시아가 와서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양잔치는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삼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참부모로서 나타났다면 사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를 중심삼고 그 혈통을 묶어 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남자 여자, 성상 형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 생명을 움직여서 사랑·생명·혈통이 하나되어 소용돌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자와 남자의 주인이 바뀌어 둘 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된 자리에서 생명의 씨, 후손이 연결됩니다. 그것이 창조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만물을 대신해서 찾고 인간을 대신해서 찾고 부모를 대신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

이 구원섭리의 골자입니다.

재림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즉 어린양잔치를 하려면 예수님을 중심삼은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부가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입니다. 예수님은 2차 아담이고, 오시는 재림주님은 3차 아담입니다. 그래서 3차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와서 타락하기 전의 해와를 찾아서 어린양잔치를 해야 됩니다. 결혼함으로써 인류의 부모가 되어야 할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악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선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선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양잔치를 하는 것은 선한 부모로 등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고 때와 환경을 갖추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창조

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타락한 조상이 되었으니 만민 앞에 타락하지 아니한 선의 조상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는 하늘에 가 있는 영인들에게도 아버지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을 기독교에서는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어린양잔치는 재림 예수가 아버지로 오셔서 어머니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중심은 신랑 신부요 신랑 신부의 중심은 어린양잔치입니다. 이 어린양잔치의 중심 뜻은 본래 하나님이 허락한 때와 환경을 갖추어서 하늘과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참다운 인간조상으로서 축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담 해와의 대신



성혼식 후 피로연을 하고 계신 참부모님.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나무 대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완결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한 날을 못 가졌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명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한 시간, 6천년 원한의 심정을 터놓고 하나님과 혹은 앞으로 오시는 주님과 아들딸의 인연을 맺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천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

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년 기독교 역사는 딸을 찾는 역사입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딸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해원하는 그날이 어린양잔치날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이상적인 하나의 남자와 이상적인 하나의 여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몽땅 내 사랑이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랑 신부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를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찾기 위한 내용을 말합니다. 완성된 남자와 여자가 이 땅 위에서 만나 혼인잔치를 치려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재림주님은 신부를 찾아서 어린양잔치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원죄 없

는 아들딸을 낳아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 부모는 참된 부모입니다. 또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하나된 가정입니다. 그 아들딸은 하나님 가정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뜻을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세워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신랑은 완전한 참아버지로 오시는 분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참여머니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사탄을 중심삼고 결혼식을 해 버렸으니, 그것을 다시 찾아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삼고 성례식을 이룬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양잔치라는 말입니다. 

본 말씀은 참부모경 제1편 제2장 1절에서 발췌된 말씀입니다.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제55회 하늘부모님의 날 및 제63회 참부모의 날 천일국 경배 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6일(양 2022.4.16) 오전 7시,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제55회 하늘부모님의 날 및 제63회 참부모의 날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큰 박소리와 함께 천정궁에서 진행되었다. 주진태 신한국 공동대륙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참가정을 대표해 문연아 의장이 성초 점화를 했다.

천일국가와 가정맹세를 차례로 제창 후,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의 기도가 이어졌다.

“참어머님께서는 우리와 전 세계를 새로운 희망으로 축복하셨고 우주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로서 참어머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섭리의 최전선에서 신통일한국을 향해 밤낮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님 저희는 이제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참어머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님의 심정에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어머님께서 하늘의 독생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하늘부모님, 참아버님, 그리고 독생녀 참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참석자 모두가 예를 올렸다. 이어 문신출·문지우 가정과 문신홍·문유메 가정이 참어머님께 꽃다발 봉정을 했다.

이어 아프리카 천의원 지도자인 바카라 카마라와 캐시캐시 리니, 마이클 발콤 유럽회장, 자크 마리온 유럽 UPF 회장이 모든 천일국 지도자들을 대표하여 연단에 올라 꽃바구니를 봉정했다. 이 지도자들을 따라 2, 3세 자녀인 6명의 소년, 소녀가 참어머님 앞에 섰다. 참어머님께 경배를 하고 꽃바구니 봉정을 한 후,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주진태 회장의 진행으로 영육계 참가정의 경배가 있었다. 인터넷 양방향 생중계를 통해 해외에서 연결된 문선진·박인섭님 가정과 문권진·전화연님 가정도 포함되었다.

뒤를 이어 신한국, 신일본, 신북미,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미, 신아시아 1,2지구의 2세 지도자들이 경배를 했다. 이어 전 세계 천일국 미래지도자인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대표들이 나와 경배했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참석 중인 식구들도 경배를 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후, 참여머님께서 성찬을 시작하셨다. 참여머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이 천일국 9년 천력 3월 16일(양 2021.4.27) 천원궁 상량식에서의 참여머님 축도를 훈독했다.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고마우신 하늘부모님! 너무도 너무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이 가슴 설레는 이 날을 맞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성혼 61주년을 맞게 되는 오늘, 비로소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상에 봉헌할 수 있는 오늘 상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 민족이 소원하는 통일한국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이 완공됨은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지상에 참부모와 함께 안착하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는 물론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책임자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긍휼과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민족 앞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국의 자격을 갖추는 축복가정들로서 축복받은 자들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며 이끌어 나가는 중심인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오늘날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중심국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하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지도자들과 가정들은 더이상 하늘 앞에 불효불충한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이상 하늘을 슬프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늘의 가호를 바라거든 하늘의 축복을 바라거든 하늘부모님을 바로 알고 모시는 길만이 이 나라와 인류가 나아갈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상량식을 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나는 너무나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2023년 봉헌할 때까지 오늘부터 하늘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역사하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참부모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훈독회 후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의 역만세 삼창이 진행되었다. 양창식 천의원장은 “오늘은 무형의 하늘부모님께서 실체의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신 감사, 감격, 승리의 날입니다. 그동안 하늘부모님의 날과 참부모의 날을 별도로 기념해오던 지난 날은 오늘 실체의 참부모님의 현현의 이 날을 기해서 하나로 하늘 앞에 봉정하게 되는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주시는 참여머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세 행사에 뜻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신통일국을 향한 결의와 다짐을 하늘 앞에 크게 봉헌하는 마음으로 역만세 삼창을 봉정해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1 자줏빛 고운 한복을 입고 등단하신 참여어머님.
- 2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문신출·문지우 가정과 문신흥·문유메 가정
- 3 성초 점화를 하고 있는 문연아 의장.
- 4 천정궁 연회실 행사장에서 다 같이 역만세를 외치고 있다.



하늘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옵소서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6일(양 2022.4.16) | 청심평화월드센터

오늘 세계 70개국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2100쌍이 존귀하옵신 하늘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품고 싶었던 효자효녀, 충신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무한히 감사 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리옵니다.

사랑하옵는 천지인참부모님! 얼마나 인류를 품기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수고로 인하여 천일국이 안착되었고, 새 역사의 봄바람이 부는 이때에 오늘 당신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축복가정들은 기필코 당신이 인류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그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들을 통해서 종족과 나라를 거쳐 세계에 있어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에 참부모님과 함께 이 대역사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오늘이 되고,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참부모님, 이제 저희들을 믿어주시옵소서! 기필코 독생녀 참여머니와 하나 되어서 당신의 꿈,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아들딸들이 될 것을 재삼 결심하고 실천궁행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선포 하나이다! ㄸ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6일(양 2022.4.16) 천지인참부모님 성혼 62주년을 기념하여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2022 효정 천주 축복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교회에 신랑신부가 모였다. 세계적으로 2100쌍의 커플이 축복을 받았다. 비록 해외 식구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지만, 한국 축복축제에 참석한 커플들은 청심평화월드센터에 모였다.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인 수선화로 아름답게 꾸며진 무대에서 청중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0년 천력 3월 16일, 이 땅에 독생자·독생녀로 현현하신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어린양잔치 성혼식을 통해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양위분께서 천주사적인 성혼식을 통해 참부모가 되시었기에, 참감람나무인 양위분의 순수한 혈통에 돌감람나무인 인류가 접붙임 됨으로써 중생·부활·영생의 길인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의 길이 바로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위대한 축복결혼의 전통입니다."

신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에게 준비한 꽃 한 송이를 전달하며 축복식의 이벤트를 장식했고, 다시 앉았을 때 행사가 어두워지고 2분 30초간의 조명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 축복의 땅, 분열의 땅, 평화의 땅을 표현한 뮤지컬이 시작되었다.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를 떠날 때 예복을 입은 선배가정들이 둘러리 입장하고 주례를 맞을 준비를 했다. 이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주례이신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로 사랑하는 참부모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참어머님께서 등장하자 윤 본부장은 이어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하늘부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커플들에게 하늘부모님의 효정을 전하시기 위해 입장하시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다.





문연아 의장의 호위를 받으며 두 줄로 늘어선 들러리 가정들 사이로 참여머님께서 입장하셨다. 윤 본부장은 이어 “1960년 참부모님의 천주성혼식에 영계와 지상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특별한 날 헌신과 절대적 희생의 길을 걸으신 우리 참부모님께서 2022 효정 천주 축복식을 주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미혼 신랑 신부를 대표한 13쌍이 무대 위 단상에 올라 참여머님께 예를 올렸고 참여머님께서 성수를 하사해 주셨다. 단상 아래에 있는 신랑 신부들은 성수요원들을 통해 성수의식이 진행됐다. 윤 본부장은 “성수는 지난 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부활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70개국 2100쌍의 미혼 커플들이 참부모님을 대신한 각 대륙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통해 동시에 성수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이어 성혼문답이 있었다. “성혼문답. 그대들은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천지인 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냐?” (예!) 참여머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신부들을 위해 귀한 축도를 하셨다. 이어 신랑 신부 대표 13가정이 앞으로 나와 참여머님께 예를 올렸고, 참여머님께서 영원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전통을 지키는 귀한 예물을 하사해주셨다. 신랑신부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사받은 예물을 교환했다. 이어 참여머님께서 성혼을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지인참부모님의 주례로 천주축복식에 참여한 선남선녀들과 가정들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은사로 천주 앞에 성혼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랑 신부 대표 가정은 전체를 대표해 참부모님께 꽃다발과 예물을 봉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다. 전 세계 70개국 2100쌍의 신랑신부들이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위한 길에 발을 내딛었다. 그 길 위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③



④

- 1 참여머님께서 효정 전주 축복축제의 축복식 주례로서 입장하고 계시다.
- 2 신랑신부들이 박수를 치며 이 축제의 현장을 즐기고 있다.
- 3 참여머님께서 신랑신부 대표들에게 성수의식을 거행하시는 장면.
- 4 참여머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신부들을 위해 축도를 하고 계시다.
- 5 성혼문답을 집전하고 계신 참여머님.
- 6 참여머님께서 하사하신 예물 반지를 신랑신부 대표들이 서로에게 끼어주고 있다.



⑤



⑥



크리스털보다 더 맑은 모습으로 그늘진 역사를 청산하고 넘어가자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7일 (2022.4.17) | 천원궁 건설현장 야외광장 특설무대



좋은 날이죠? 이 성전의 모습을 이제 실감하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는 물론이요, 하늘섭리를 놓고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게 된 이 역사적인 날을 맞고 보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회와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게 됩니다.

6천년 인류를 찾아 나오시는 하늘부모님의 수고와 고통과 기다림을 생각하게 될 때, 6천년 만에 인류 앞에 이 한반도를 중심삼고 참부모가 현현한 날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의 백성이 참부모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날, 감사와 축하와

경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1960년 3월 16일 이루어졌으나 하늘이 보시기에 너무도 가슴 아픈, 마치 강가에 어린아이를 두고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참부모의 삶이었습니다. 그 60년간 하늘부모님 앞에 송구함과 죄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천원궁 봉헌을 1년 앞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통일교회 선배이기도 하니 하늘섭리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틀간 총 수련을 통해서 참부모의 현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필코 알아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모든 것을 청산한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2023년 5월 5일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의 삶은 그림자가 없어야 해요.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해요. 천상천국으로 가는 나의 모습은 크리스털보다도 더 맑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식구 중에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통일교 60년 역사의 그늘이 있었다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심천보수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정성을 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ㄸ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과 오벨리스크 천승탑 제막

천원궁 건물 너머에 있는 도로를 평일에도 여러 차례 지나가다보면 천원궁의 현장의 진전을 보게 되는데,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27일 천원궁 건설현장에 참부모님을 비롯한 참가정과 정치, 종교계 고위 인사들이 모여 상량식을 진행했다. 이것은 골조가 완성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지붕과 그 위에 5개의 돔을 추가했고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내벽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벽은 오만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장식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7일(양 2022.4.17), 참어머님께서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과 오벨리스크 천승탑 제막식을 진행하셨다. 오벨리스크는 보통 지면에서 꼭대기까지 점점 좁아지는 4면의 돌기둥이다. 알려진대로 맨 꼭대기는 피라미드 모양을 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흙벽돌로 만든 귀족 무덤과 파라오 계단 피라미드(기원전 2670년경)의 건설에 앞서 초기 왕조시대(기원전 3150-2613년)의 어느 시점에 이 형태를 만들었다. 초기 오벨리스크는 피라미드 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으며 돌을 조각하는 일종의 일꾼의 훈련 단계였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신을 기리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거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오벨리스크를 만들었다.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공식은 피라미드 건설과 같았는데 이것은 토대의 크기에 최대의 높이를 지으려고 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 건축가들이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개 이상의 돌로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했다. 유명한 오벨리스크인 워싱턴 기념비는 미국의 첫 대통령(1789-1797)이자 미국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싸운 대륙군 총사령관(1775-1784)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해 세우졌다. 하지만 워싱턴 기념비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오벨리스크 천승탑 제막식 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어머님께서 80세가 되는 내년 5월5일 천원궁 봉헌식을 거행할 것이고, 특별히 천원궁은 하늘부모님께서 거쳐하시는 성소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참어머님의 정성을 이어받아 결의와, 결단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참부모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참어머님께서 이미 도착하셔서 지하부터 천일 성소를 둘러보시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천의원장이 합심하여 보고기도를 올렸다. 참어머님께서 제막 버튼을 누르신 후, 오색폭죽과 함께 베일이 걷히며 오벨리스크 천승탑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참어머님께서 천원궁을 하늘부모님이 거하실 성소로 말씀하셨다. 따라서 천원궁 건립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언젠가는 전 인류가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지로 여길 것이다. 





①

- 1 신일본 도쿠노 에이지 천의원장, 신한국 이기성 천의원장, 신미국 김기훈 천의원장이 함께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 2 천일국 지도자들이 단상에 도열한 가운데 한일미 3개국 지도자들이 대표로 “천원궁 승리 봉헌을 위한 우리들의 결의”를 봉헌하고 있다.
- 3 9개 대륙을 대표하여 대륙회장들이 참여머님께서 하사하신 오벨리스크 천승탑 모형물을 들고 참여머님을 모시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 말씀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신 참여머님.



②



④



③



⑤



⑥



⑦

- 5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특별오찬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계신 참여머님.
- 6 토마스 윌시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과 탐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재단 이사장이 참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다.
- 7 승리제의를 위해 잔을 들어 올린 참여머님과 천일국 지도자들.
- 8 축포가 터지는 가운데 억만세를 하고 있는 천일국 지도자들.



⑧

참부모님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특별오찬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7일(양 2022.4.17), 청심월드평화센터에서 특별 오찬이 열렸다. 오전에 열렸던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을 마치고, 초청된 천일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천일국 지도자들의 큰 박수 속에서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토마스 월시 UPF 회장, 탐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회장, 로버트 키틀 신아시아태평양 천의원장, 주동문 국제과학통일재단 이사장, 신동모 신남미 UPF의장, 에크 닛 다갈 신아시아태평양 UPF회장이 참어머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했다.

축하케이크 커팅이 이어졌다. 참어머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성혼축하 노래'를 다함께 부르며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예물 봉정의 시간이 되었다. 진심 어린 심정을 담아 9그룹에서 준비했다. 첫번째 예물은 신한국의 공동대륙회장인 주진태, 황보국, 유경득, 이상재 회장이 봉정해 올렸다. 이어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과 이성만 신일본 부회장은 참어머님께 유화 그림을 봉정했다. 이 예물은 축복 2세인 고쿠후다 히메나의 작품으로 깊은 정성과 기도 속에 영감을 받아 하늘부모님과 하나되신 참부모님의 따뜻한 참사랑의 빛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박영배 신한국 공동대륙회장과 박종필 신일본 5지구장이 참어머님께 한일 해저 터널의 모델을 봉정했다. 용정식 신북미대륙회장 또한 참어머님께 예물 봉정을 했으며, 바카리 카마라 신아프리카 천의원장과 카디마 문다디 신아프리카 대륙회장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인 링갈라어로 번역된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봉정했다. 마이클 발콤 신유럽 대륙회장은 그림을 봉정했으며 김상석 신중미 대륙회장과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은 현존하는 최대 맹금류 '안데스 콘도르'를 아연으로 제작한 작품을 봉정했다. 데미안 던클리 신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과 야마다 유타가 5지구장은 태국의 전통 도자기 양식으로 왕실용으로 사용된 것을 재현한 예물 벤자롱 항아리와 황금 잉어가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낸 크리스털 공예품을 참어머님께 봉정했다. 전 세계 국제가정을 대표해 김수연 국제가정협의회 회장과 나라이 유미 부회장도 예물을 봉정했다.

예물 봉정에 이어 문연아 신한국 UPF의장의 승리제기가 있었고 이후 특별오찬이 시작됐다. 어머님께서서는 “오늘 특별히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먹어요.”라고 말씀하셨다. 프랑스에서 전수받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특별한 디저트까지 포함하여 오찬이 마무리된 후, 참어머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야 할 특별 정성에 대한 짧은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바리톤 김동규,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가수 조항조, 천일국 지도자들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졌다. 억만세 삼창을 끝으로 특별오찬을 성료했다. 





천일국 안착시대에 여성이 앞장서 하늘부모님을 교육하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3월 21일(양 2022.4.21) | 청심평화월드센터

사랑하는 국내외 지도자,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역사는 남성 위주로 나오면서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기독교 환경권이었던 유럽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제일 선두에 섰던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십자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고객하며 2천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

의 전통을 가정에서 실천한 여성,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부모의 승리적인 터전 위에 천일국 안착을 한 이때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앞장서서 하늘부모님을 교육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류가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참부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종족, 나라, 세계적으로 타락한 인류 전체가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봉사 좋아요. 우리가 해오던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200여 개 이상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각자가 태어난 본질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참부모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특히 하늘부모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이 나라, 한반도가 신통일한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참부모님이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진실, 창조

주의 본질, 자기가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자기만 죽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는 6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를 탄생시킨 민족으로서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섭리는 물론 역사의 진실을 알게 하여 각자가 책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열 달 품어 출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항상 눈길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아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이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서

그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로 볼 때에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고,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전쟁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의 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호하사, 이 민족에게 하늘이 고대하고 기다려 나오신, 하늘의 자녀로 탄생시켜줄 인류의 조상 참부모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탄생과 더불어 독생녀 섭리가 활발히 진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타락한 인류를 다시 낳아줄 분은 참부모이며 독생녀 참여 어머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이면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6천년간 하늘이 소원하고 꿈꾸시어 기다려 나오신 실체적 환경이 자리잡게 됩니다. 한반도가, 특히 남한의

백성이 백 퍼센트 하늘부모님의 백성으로 접붙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연합의 여러분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변과 지역, 종족, 나아가서는 민족을 하늘부모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참부모를 통한 참자녀의 자리로 나아가 수 있도록 교육하여 탄생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화려합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꿀릴 데가 없어요. 무엇이 주저가 됩니까? 여러 번 나는 말했습니다. 나와 하나되어 나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성연합 회원들이 거두는 실적이 여러분 남편에게도 크게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 되니까 일석이조인데 하겠습니까? 하늘의 전통을 세우고, 교육하고, 참된 아들딸로 탄생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연합 회원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잘해봅시다! 



‘혼돈의 시대,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평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세계평화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천일국 10년 천력 3월 21일(양 2022.4.21) 오전 10시에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거행했다. 경기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미국, 일본, 영국, 체코 등 60개국에서 참석한 국내외 여성 지도자 및 여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언어로 통역해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 기념식에서 “인류 역사는 남성 위주로 나오면서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였으며, 특히 중세시대의 기독교 환경권이었던 유럽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들어나지 못했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제일 선두에 섰던 것도 여성이었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변지역, 종족, 나아가서 민족, 하늘부모님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탄생시켜줘야 한다”면서, “우리의 길은 화려하고 거칠 것이 없으며 당당하니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하늘의 전통을 세우고 교육하고 참된 아들딸로 탄생시키는 자격을 갖춘 여성연합 회원 모두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평화를 위해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여성연합 30주년 기념식은 개회선언, 여성연합 회원들의 사명선언문인 ‘우리의 다짐’ 제창, 김수연 여성연합 한국회장의 보고기도, 문훈숙 여성연합 세계회장의 환영사, 문선진 여성연합 세계수석부회장 및 대륙부회장의 영상축하메시지, 문연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의장의 격려사, 꽃바구니 봉정, 30주년 축하케이크 커팅, 예물봉정, ‘여성연합 30년사’ 및 성가치관 교재 봉정, 공로상 수여, 한학자 총재의 창설자 연설,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축하공연, 통일의 노래 합창, 지역봉사상·헌신봉사상·감사패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문훈숙 여성연합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평화 운동인 여성연합은 지구촌 곳곳에서 참된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참가정 가치운동과 참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며, “한학자 총재는 창설 메시지에서 ‘여성연합은 세계 여성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천의에 따라 여성들을 중심한 평화 운동의 중추 기관으로써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한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여성 시대가 도래한 섭리의 봄절기이니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참사랑의 실천인’이 되어 참된 여성·어머니로서 사회 안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자”고 세계 여성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제3대 여성연합 세계회장을 역임한 문연아 UPF 한국의장은 격려사에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여성연합 회원들은 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해 빈곤·갈등·문맹·기아·질병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참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본이 되어 ‘평화의 어머니’가 되어 준 한학자 총재는 ‘여성의 불행은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과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했다”면서, “여성연합과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30주년을 축하했다.

여성연합은 1992년에 문선명·한학자 총재로 인해 한국에서 창립되어 ‘인류 한 가족 평화세계’를 위하여 UN과 국제 협력, 지도자교육, 국제구호와 나눔과 봉사, 인증·문화·종교적 화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고자 전 세계 120여 국가에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5월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 NGO의 최고등급인 ‘포괄적 협의기관’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 23개 도지부와 200여 소속지부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화합 및 평화를 위한 시민교육, 지역봉사활동, 지구가족사랑1%운동과 가자아이드림 (GAZA iDream) 등 나눔·봉사 프로젝트와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①

- 1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무대에 등단하신 참여어머님.
- 2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고 계신 참여어머님.
- 3 참여어머님께서 예물봉정하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 4 참여어머님께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위해 애쓴 전임회장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신 후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 5 신한국 여성연합을 대표해 이쿠타 타미코, 문혜림, 김미주, 지모또 유끼오, 모리나가 에미코 여성연합 5개 지구회장이 참여어머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다.
- 6 리틀엔젤스예술단이 “설날 아침”이라는 레퍼토리로 손에 복주머니를 들고 양중맛은 춤동작을 보이며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 7 (좌측부터) 환영사를 한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격려사를 한 문연아 천주 평화연합 한국 의장, 보고기도를 한 김수연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회장, 사회를 맡은 홍성순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 부회장
- 8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끝난 직후 5개 지구별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 사진은 1지구의 여성연합 회원들의 단체기념사진이다.



②



③



④





6



6



7



8



여성시대가 도래한 섭리의 봄 절기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평화여성연합 전국 임원 및 회원 여러분! 특별히 참석해 주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름답게 꾸민 이곳 효정글로벌아트센터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허락해주신 실제 성신 독생녀 참여머님의 무한한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천력 1월 감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월드 서밋을 불굴의 의지로 진행하시고 평화의 어머니로서 세계 정상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내려주시며 기적적인 고지 탈환의 승리를 이루신 터전 위에, 천력 3월 16일,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과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일편단심 뜻 길을 걸어오신 참여머님께서 하늘부모님께 송구한 심정을 말씀하실 때 하늘부모님을 향한 참여머님의 사랑 앞에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5월 5일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거하시며 치리하시는 성전인 천원궁 봉헌식을 앞두고 흠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저희

들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특별 교육과 정성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세계평화여성연합 30주년 기념행사를 오늘 이렇게 참여머님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큰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사와 영광 앞에 세계평화여성연합 전 세계 회원 모두를 대신하여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잃어버린 아들딸들을 되찾으시기 위해 6천년 동안 피, 땀과 눈물로 수고해 나오신 하늘부모님 그리고 하늘부모님을 해방해 드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일평생 6천년 타락역사를 탕감하시며, 몸소 환경창조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참부모님께 우리 모두 다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지도자 및 여성연합 회원 여러분!

여성연합은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이상 세계 실현”이라는 섭리사적 의의를 지닌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평화 운동을 위해 창설한 섭리기관입니다. 참아버님과 참여머님께서 각각 하늘부모님의 남성과 여성의 일성을 대표한 자리에서 성혼하시고 참사랑을 중심으로 동등한 자리에 계시지만, 하늘섭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참여머님께서 참아버님을 섭리의 중심축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셨습니다. 1990년 모스크바 대회, 1991년 김일성 주석 회담 승리 후 ‘하나님 축복영원 선포식’으로 승리하신 참여머님께서 하늘어머니 해방을 통해 전 세계 여성의 해방과 참된 여성운동을 위해 세계평화여성연합을 공동설립자로 창설하게 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연합은 참여머님의 분신체로서 지구촌 곳곳에서 참된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참가정 가치운동, 평화 화해운동, 국제구호, UN활동, 참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2012년 성화하시기 전 개최하신 마지막 대회가 바로 아벨여성UN 창설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신 것은 이 지상에서의 섭리를 실제성신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된 여성들이 아벨여성UN을 통해 주도적으로 하늘부모님의 평화 세계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니

다. 참아버님의 성화 이후 참어머님께서는 2013년 1월 여성연합 신년 하례회에서, ‘중단 없는 전진’을 강조하시고 “사랑하는 딸들아! 동생들아! 여성들이 앞장서서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자”고 눈물로 호소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어머님의 지난 섭리노정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당신 홀로 개척해 나가시며 승리해 나오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천 일국 안착을 선포하신 이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역사적 흐름 속에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향한 비전 2027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오늘도 섭리의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1992년 창설 메시지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세계 여성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천의에 따라 여성들을 중심한 평화 운동의 중추 기관으로써 그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여성 시대가 도래한 섭리의 봄 절기’입니다.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도 점점 여성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어머님을 따라 하나가 되어 평화세계 실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복귀된 나라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어 하셨던 참부모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비전 2027’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의 지지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각 지역 여성연합의 책임자를 교회 책임자 사모로 세워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성연합의 책임자들에게 교회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나아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인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 ‘참사랑의 실천인’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참부모님의 대신자가 되라고 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섭리의 최일선에서 몸부림치시며, 전력투구하시는 하늘의 독생녀, 우리 참어머님의 심정에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최고의 동역자들이 되어 드리는 여성연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성연합 지도자 여러분!

지난 30년간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여성연합을 이끌어 오신 최원복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사길자 회장님, 정대화 회장님, 문난영 회장님, 문연아 회장님, 그리고 최영선 회장님, 지난





수년간 여성연합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뜻 길만을 걸어오시며 여성연합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눈물어린 헌신과 희생적 사랑으로 아픈 세상을 보듬어 주신 원로 가정, 1세대 지도자 및 모든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여성연합을 맡고 보니 그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외조를 해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남성 여러분들께 우리 여성들이 따뜻한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연합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에서 정말 가장 큰 영광이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연합 지도자 여러분!
참어머님께서 여성연합에 거는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

지 다시금 느끼고 회개하며, 참어머님을 모시는 실체적 기반이 되어 드리고, 영적으로 기도정성의 토대를 쌓아 섭리활동의 현장 전위대가 되어, 참어머님의 뜻을 받드는 '효정의 딸'들이 됩시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참된 딸로서, 참된 여성으로서, 참된 어머니로서, 사회 안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연합이 됩시다. 누구나 오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커뮤니티이자 단체로 당당한 여성연합의 모습을 갖추어, 실체성신 독생녀 참어머님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인류의 참어머님으로 평화의 어머니로 증거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역사와 참부모님께서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업적과 비전에 대한 자부심으로 참어머님과 절대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더 큰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심이 되는 여성연합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가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저의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성들의 집단적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다

문선진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석부회장



지난 30년간 전 인류와 지구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여성연합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창립자이시며 귀감이 되시는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 그리고 여성연합 회원 모두 행복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런 평화의 유산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제게 있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또한 현장에서 감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 세계 지도자와 회원들, 봉사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간의 모든 활동은 78억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류를 한 가족으로 섬기고 지구와 지구촌 형제자매들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됨으로 인해 지구 평화 실현의 꿈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처럼 여성연합은 세계 평화의 주축이며 여성들의 집단적인 사랑의 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탁월한 프로젝트를 소개드리자면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기여했습니다. 소액대출을 통한 경제 지원은 특히 여성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가 외딴 마을에서 활동하고, 영양지원,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

동들이 수천 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결혼 준비, 육아 관련 세미나가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평화의 기반인 참가정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프로젝트는 2020년 봄에 출범한 '기빙 포 굿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류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재사용, 재활용, 용도 변경을 하는 이른바 '순환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기빙 포 굿'은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와 무신경함 때문에 자연환경을 남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며 또 필히 멈춰야만 합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하늘부모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상태로 이 세계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기빙 포 굿'은 무척 효과적인 모금 활동을 조직했는데, 세계 인도주의 활동 및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게 될 자금이 25만 달러 이상 모였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본보기와 영감이 되는 말씀으로 세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참부모님께 끝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평화를 향한 양위분의 전적인 헌신이 오늘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평화여성연합 활동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우리의 신념, 인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깃든 봉사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인정하며 인류 한 가족으로서 뭉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 활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 활동에 함께 해주실 차세대 평화지도자들을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여성연합이 평화를 위해 훨씬 더 큰 활약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부모님과 여성연합의 모든 회원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모성적 사랑의 힘으로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



존경하는 천일국 지도자 여러분,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의 회원과 지도자 여러분!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자리에서 항상 천지인참여머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시던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과 전 세계 통일가 식구들이 눈물과 정성과 그리움으로 발전시켜 온 천원단지에 HJ글로벌 아트센터에서 기념하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의 30주년입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전 세계 천일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하늘부모님께서 6천년 섭리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인류에게 보내주신 독생녀 천지인참여머님을 직접 모시고 섭리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천지인참여머님께서 정성들이시고 준비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계평화여성연합에 대한 하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여성연합의 지도자들과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역사의 황금기에 해야 할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워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것을 결의하며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천일국의 지도자 여러분!

저는 1992년 4월 10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세계평화 건설에 동참하는 여성들로 올림픽주경기장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참여한 여성 지도자들과 한국 각지에서 새로운 여성시대 출발을 소망하며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여성들 위로 울려 퍼지는 참여머님의 청아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여성의 불행은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과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데에서 유래한다는 참여머님의 가르침은 여성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간직해온 희생과 봉사 미덕을 세계 인류를 위해 주고 또 주는 세계적 차원의 참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여성들이 인류의 미래 자체를 잉태하고 해산하며 양육하는 역사적 차원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연합이 지향하는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힘으로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기본 이념은 여성연합이 전 세계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유엔 최고 등급의 NGO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륙에서 그리고 한국의 각 지역에서 여성연합의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과 지도자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자매와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활동하면서 느끼고 확인한 것은 우리 여성들이 가진 모성적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성연합 회원들 앞에 모델이 되어주신 평화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참여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전 세계 여성연합 회원들은 현

실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 본연의 모성애를 중시하고 위하여 사는 사랑의 리더십으로 아동과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으며 참가정 가치를 교육하고 구호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지원, 화해와 교류, 미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여성연합 회원들은 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참된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 또한 참여어머님을 모시고 여성연합과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하늘의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참여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올립니다.

참여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도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참여어머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천지인참여어머님의 사랑을 전 세계 곳곳에 전달하는 최고의 섭리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참부모님 향한 해바라기 같은 지도자들의 정렬

비어드 데이빗 아렌 트루피스매거진 편집장

전 인류의 삶을 어렵게 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어머님께서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거나 그 이상의 승리를 거두셨다. 참어머님의 섭리 향한 노정은 정체되기는커녕 더욱 빨라졌고 통일운동을 새롭고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은 이제 참부모님의 업적과 그들의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플라 화이트 목사와 같은 지도자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열렬한 애호자이자 참여자이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주관하는 천일국 세계지도자 특별교육 및 천심원 특별정성에 참석하라고 하셨다. 이는 2년여 만에 진행된 수련이었고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참부모님과 서로를 보지 못했다. 휴식시간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등 마치 가족 모임과도 같았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섭리의 긴급한 내용들은 전 세계 식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축복을 해주시고 항상 성공을 거두셨고 이를 국가, 주요조직 지도자들에게 전수해주셨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알고 사랑해 오셨고 아마도 이들을 그리워하셨을 것이다. 사랑은 행동을 위한 옳은 동기가 되지 않는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도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부모님의 신뢰와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떨어져 있는 2년동안 그들의 구성원들과 그들이 성장시켜 온 사람들을 돌보며, 항상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천부적인 견해로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늘 그렇듯 참어머님은 참부모님의 말씀에 있어 다른 관점을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두 명의 강사를 선택하셨다. 그 중 한 명은 청평수련원을 오랫동안 맡아 온 이기성 천심원장이다. 참어머님은 1년 전에 그에게 매일밤 자정부터 3시간 동안 기도정성을 하라고 명하셨다. 이는 이 원장의 생활의 일부이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도 종종 맡아왔다. 이 원장은 훌륭한 경영자이자 지도자이지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영적인 장소들을 마치 우리가 가본 적이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묘사하곤 한다.

또 다른 강사는 김진춘 박사이다. 김 박사는 보기 드문 통일신학자이며 종교지도자이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통일신학대학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했다. 김 박사는 영어에 능통하고 과학적 관점에 능숙하다.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연구하는데 그들은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한다. 수련 둘째 날, 김박사는 강의 시작에서 약 15분 가량을 전날의 주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을 참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 적용한다.

수련에서 지도자들이 받은 신학적, 영적인 교훈은 참부모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희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돌이켜 볼 때마다 지도자들은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참어머님께서 한국으로 불러 모은 지도자들과 원로식구들은 참어머님께서 지상에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노력의 다음 단계에서 참어머님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1 천일국 세계지도자 특별교육을 위해 강의를 하고 있는 김진춘 천법원장.
- 2 (좌측부터) '천일국 세계지도자 특별교육 및 천심원 특별정성' 개최식 때 대표기도를 한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 개회사를 한 이기성 천심원장. 특별교육의 강사 김진춘 천법원장.
- 3 천일국 세계지도자들이 특별교육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황금기와 같은 이 때 책임을 하여 하늘부모님을 기쁘게 모셔드리자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세계지도자 특별집회
천일국 10년 천력 3월 21일(양 2022.4.21) | HJ천주천보수련원



그동안 2박 3일 동안에 어떻게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실제로 지상천국 생활을 인류에게 보여
줘야 해요. (중략)
그러려면 여러분이 섭리를 바로 알아 지금 현재 지상에서
섭리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독생녀 참어머니와 하나 돼서 우선
한 민족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탄생이 되었기 때
문에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국가 복귀 전에 가평 복귀, 설악 복귀 한다.

최선을 다해요. (중략)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 백성을 구해야 돼요. (중략)
한국 교회는 본부와 하나 돼서 5개 지구는 국가 복귀에 전
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천일국
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지 국가복귀입니다. 이 황금기와 같은
길지도 않은 이 때 책임을 하여 하늘부모님을 기쁘게 모셔드
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중략)
기적이 일어나도록 더더욱 열심히 매달리세요. 7



- 1 (좌측부터) 사회를 맡은 방승만 선교처장, 보고를 드리고 있는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 억만세 선창을 한 이현영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
- 2 참부모님께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융정식 신미국 대륙회장과 마이클 발콤 신유럽 대륙회장.
- 3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일국 세계지도자 특별집회가 열린 HJ천주천보수련원 천성왕림 궁전 대성전 행사장 전경.
- 4 광야의 사나이를 제창하고 신한국 지도자들.



①

②

③

④

영적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현장,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제55회 하늘부모님의 날과 제63회 참부모의 날,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을 기념 하는 효정 천보특별대역사가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5일 및 17일(양력 2022.4.15, 4.17)에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천보대역사는 영육계 축복식도 함께 진행되어 전 세계의 참석자들이 영적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4개의 옵션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식구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첫째 날(양 4.15) 천성왕림궁전 대성전에서 열린 대역사 프로그램에는 수련원 임직원 및 천원교회 공직자를 중심한 식구들 200여 명이 PCR 검사를 마친 후 복장을 갖추고 마스크를 한 채 참석했다. 그리고 전 세계 식구들이 양방향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효정문화공연과 효정간증

효정문화공연 첫 무대는 비슬무용단이 '태동'이라는 주제로 전통리듬의 신명 나는 사운드와 타악기 퍼포먼스를 웅장하게 선보여 분위기를 돋웠다. 다음으로는 김가연 HJMBT센터장이 4명의 스태프와 함께 천일국 체조를 음악에 맞춰 소개하였다. 천보찬양에 앞서 몸을 풀고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천보역사의 은혜를 나누는 효정간증 시간에는 문수성, 오자키 유키 2015천지인참부모 천주축복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오자키 유키 식구는 남편인 문수성 식구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가정적인 어려움과 그를 비롯한 경제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021년 천보가정에 입적할 수 있었다며 은혜와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랜드피아노를 처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를 받고 20년 동안 같이 지내오며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존재인 피아노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면서 조상들을 해원하기 위해 피아노를 팔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그 금액은 정확히 210대까지 조상해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청각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에 처해 있었으나 효정 천보특별40일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고 조상해원, 조상 축복도 함께 승리하면서 무사히 자녀도 출산하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430대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완료했습니다."

천보찬양 및 조상해원식

천보찬양과 조상해원식에 앞서 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 기념 효정 천보특별대역사를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아름다운 효정천원의 풍경과 함께 참부모님 성탄 및 천주성혼과 생애노정, 참부모님을 중심한 천보섭리와 효정 천보특별대역사 의의가 소개되었다. 수련생들을 하늘부모님의 천보로 거듭날 것을 결의하며 참부모님의 천주사적 성혼에 경하드리는 박수를 올렸다. 첫날 오후 6시 20분, 천보찬양과 1~430대 조상해원식이 30분간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천상의 참아버님을 모시고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께서 함께한 가운데 수천억 절대선령들의 역사로 영분립되고 천보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효정 천보특별기념식

이명관 HJ천주천보수련원 부원장의 사회로 효정 천보특별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이명관 부원장이 4월 16일은 전세계의 신랑신부들이 청심평화월드센터에 모여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결혼'의 은혜 아래 참된 부부, 참된 가정으로



도약하는 날임을 알리고 축복받는 선남선녀들을 위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곧이어 효정봉헌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임보니 우지레트웨 사무엘 하데베 '계시와 영성성화' 선지자가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혼 62주년을 경축하며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전 세계 축복가정과 참여머님께 축사를 올렸다. "참여머님께서 요하네스버그에 아프리카 대륙 축복식을 진행하신 때 가 엇그제 같습니다. 2022년은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섭리를 놓고 놀라운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너무도 사랑해주신 참여머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참여머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천보가정들이 참여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위해 간절한 기도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신통일한국 및 신통일세계를 위한 평화의 축원을 위해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를 중심삼고 7개 대륙(신중남미, 신유럽, 신미국, 신한국, 신일본, 신아시아·태평양, 신아프리카)을 대표하여 7명의 각계 종단 지도자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 모두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평화축원의 초종교 합수식을 거행하였다. '주님 오시네' 음악에 맞춰 보랏빛 배경에 등을 든 효정무 공연이 펼쳐지고 제단을 향해 좌우로 분홍빛과 하늘빛 예복차림의 들러리들이 도열 하였다.

이어 분원장과 YSP부회장들을 중심한 8명의 대표공직자가 입장하여 축복가정들의 효정봉헌서가 담긴 '천운상속 효정봉헌' 봉헌함을 양쪽 제단 위에 차례로 봉헌하였다.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기성 천심원장은 거룩한 의관을 갖춘 모습으로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 고천감사문을 봉독하였다. 이어 이기성 천심원장과 토쿠노 에이치 신일본 천의원장이 효정 봉헌식을 집전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6명의 대륙회장이 봉헌자로 입장하여 효정 수가 담긴 불에 효정봉헌서를 담아 녹이며 하늘부모님께 봉헌하였다. 이기성 원장과 토쿠노 원장은 불을 높이 올려 든 다음 봉헌하였다. 이어지는 천심합심기도 시간에는 하늘부모님을 향한 불변의 마음을 갖고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찾아주시는 귀한 의미와 효정봉헌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판호란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연으로 경건하게 봉헌예식을 마무리하였다.

역사적인 1~430대 조상축복식

1~430대 조상축복식이 대역사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대기시간을 가진 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기성 원장은 주례사를 통해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늘부모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해와를 재창조하시는 복귀섭리를 해 나오셨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인류역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하시기 위한 기나긴 산고의 섭리역사라는 것을 설파하였다.

이어서 이기성 원장은 간절한 축도를 하늘부모님께 올렸다. "축복 받은 조상들도 천지인참부모님 앞에 효자되는 것이 생애 목표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 영원히 천지인참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면서 천지인참부모님의 근심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계의 절대축복가정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축복으로 천상과 지상이 새롭게 화동하는 가운데 결과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조상축복식과 성황리에 치러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며 억만세 삼창 이후 전체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지구환경복원을 위한 과학자들의 혜안 모색의 장

문선진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석부회장

제3차 과학과 신에 관한 국제회의(ICSG)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CSG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님의 딸인 문선진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사상가 그리고 명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저의 부모님의 통찰력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특별히 리사 밀러 교수님께서서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사님이 설립한 콜롬비아 사범대학의 영성 몸·마음 연구소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박사님은 영성과학 발전에서 선봉장이며 최적의 보건과 웰빙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과 창조의 진정한 대변인입니다. 밀러 박사님의 놀라운 업적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여러 시간대에서 모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아침, 아름다운 오후, 그리고 멋진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참여하든지 여러분의 참여, 열정, 관심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공동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발견하고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세계평화라는 숭고한 목표는 제 부모님의 사명이었고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3차 ICSG를 목격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화합과 협력의 세계를 향한 미래의 길을 열 수 있기를 성심을 다해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첨단과학 시대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이며 당연하게도

Twenty-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ty of the Sciences Founder's Address



천일국 10년 천력 3월 11일, 12일(양 2022. 4. 11.~12.)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3차 과학과 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문선진 박사가 설립자 연설 대행으로서 연설하는 장면. 온라인으로 여러 학자들이 접속해서 경청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호”라는 말은 “장애가 없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을 수정, 개혁 또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보호는 지구의 대자연뿐만 아니라 더 크고 일차적인 과제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신성한 생명의 마음, 몸, 정신, 영혼이 복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 외적 본성을 본래의 형태와 본래의 정신으로 회복시켜 참 사랑, 신성하고 공동의 일체성, 조화, 기쁨과 평화를 갖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세계의 혼란을 목격할 때 평화와 변형은 먼 꿈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은 모든 곳의 평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서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동시에 동쪽에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도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층적인 인류 및 환경적인 고통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팬데믹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출현으로 우리는 새로운 백신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고 사례가 급증하고 감소함에 따라 우리는 가정, 직장, 그리고 삶에서 안정을 찾기 위한 아찔한 싸움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구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날씨, 극심한 가뭄, 기록적인 화재, 홍수와 폭풍, 토네이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터전을 조각내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계인의 이동과 지구상의 귀중한 종들의 증가와 감소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선물들은 모두 오염되고 낭비되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도적 환경 원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열쇠입니다

2017년 제23회 ICUS에서 하신 제 어머니의 연설에서 과학자들에게 과학 연구의 진정한 이점을 인정하시면서도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점들도 지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천지의 모든 창조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부산물을 통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만 연구하자고 제안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바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영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의 감소와 남은 것을 소비해야 하는 복합적인 필요성으로 지금까지 지구의 규모를 가능해 왔고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 불가능한 시대에 평화를 향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무정함으로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풍부한 창조물의 선물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와 책임감과 조화,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한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놀라운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 아버지인 문선명 목사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라는 자서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모래알에도 세상의 원리가 담겨있고 공중에 떠 있는 먼지 한 점에도 우주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힘의 조합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이 힘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정 밖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잎사귀 하나가 움직이면 그 안에서 온 우주의 호흡이 유지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봄비와 주룩주룩 쏟아지는 가을비의 차이를 느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과 공명하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핀 민들레는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사랑할 수 없거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이 상징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구현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에서 창조된 실체적 존재입니다.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주 모든 생명의 시작에서 최고의 자각과 신성한 존재와 공명하기 위해 우리의 본 마음, 몸, 영혼을 되돌리고 회복케 하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라, 야훼, 아도나이, 고귀한 힘, 영성 등 여러분에게 올려 퍼지는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 일체, 모든 생명과 창조의 평화가 깃든 우리의 참된 내적 본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몸과 영혼이 모든 생명과 창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주고받는 것, 깊은 공명, 공생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내적인 힘을 이용할 때 비로소 외적 결과는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세계, 평화와 안녕, 기쁨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회의 주제인 ‘첨단과학시대에 있어서의 환경보호’가 주는 위대한 정신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평화, 번영, 복지의 꿈으로 우리를 이끄는 최고의 지혜의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물질 너머에 놓여있는 세상을 밝히고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ICSG가 전통 과학에서 손대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여 환경과 인간의 관계, 몸과 마음, 심리학과 생리학, 영성 등에 대한 신화를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ICSG는 과학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데 기여할 것이고 우리가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공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업적이 세상의 궤적을 실존적 파괴에서 계몽적 복원, 화해,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로 바꿀 것으로 믿습니다. 공동의 연대의식으로 닦을 올린 이번 회의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운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의 발표와 의견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국제과학통일회의, 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호텔(주제 ‘과학의 구심점과 절대적 가치’)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역사 브리핑

스코틀랜드의 과학자이자 로마 클럽의 공동창립자인 고(故) 알렉산더 킹 박사는 국제과학통일회의(ICUS)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ICUS는 여전히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참부모님의 강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초창기

최초의 ICUS는 1972년에 열렸고 참부모님께서서는 도착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첫 번째 ICUS 참여자의 연설 제목은 “과학의 윤리적 방향”이었다. 연설에서 참여자께서는 “아시다시피 인류는 고대 혹은 중세시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도의 발달과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했으며 과학이 이러한 발전의 결정적 요소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사명으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고 말씀하셨다. 참석자들은 과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의 윤리적 방향에서 통일된 과학의 역할과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ICUS는 8개국에서 20명의 과학자가 참석했는데 참여자님의 자서전에서 “1972년 남편과 나는 첫 번째 ICUS를 소집했다.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해내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다. ICUS가 출범한 후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과학자들을 이용해 우리 자신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몇 년 후, 위와 같던 학자는 우리의 초대에 응하고 자신의 연구를 학회에서 발표하곤 했다. ICUS의 진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정한 동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두 번째 ICUS에서 60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과학철학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한 사와다 노부시게가 그 해에 의장을 맡았다. 참아버님께서는 “현대과학과 윤리적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다. 아버님의 연설에서 “본디 사람은 선하거나 가치 있는 목적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과학의 본래 성격 또한 인간을 닮은 몸과 마음, 양면을 통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 회의는 런던에서 열렸고 128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었다. 1932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에드거 더글러스 에이드리언이 그 해 의장을 맡았다. 참아버님께서는 “과학과 절대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 “과거 우리는 깊은 성찰이 없이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과학기술의 기여를 인정해왔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몇 가지 불안한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더욱 행복한가? 우리는 윤리적으로 더 건전한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더 인도적인가? 인간은 정량화할 수 없는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한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연설하셨다.

1984년 13회 ICUS는 다른 점이 있었다. 참아버님께서는 덴버리 옥중에 계셨고, 참어머님의 자서전에서 “1984년 9월 2일 국제문화재단은 워싱턴 DC에서 13번째 ICUS를 개최했다. 42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나는 한 분, 한 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창립자 연설을 읽었다. 설립자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과학자들은 감사를 표했고 스태프들은 행복해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회의가 하나님의 것이며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부부가 과학의 윤리적 대 비윤리적 이용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적합해 보인다. 한국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무기들이 발명되었고 시험되었다. 참부모님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과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2000년 ICUS 이후에 참부모님께서는 구원섭리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셨고 몇 년이 흘렀다.



제23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주제 지구환경의 위기와 과학

부활한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다음 ICUS는 2017년 2월에 열렸고 참아버님 성화 후 5년 만에 이루어졌다. ICUS 행사는 현재 효정국제과학통일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조직과 함께 회의는 자연 환경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7년 2월 4일 참어머님께서 주최한 회의에서 ICUS를 부활한 이유를 참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2017년 2월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잠실 호텔 롯데월드에서 열린 제23회 ICUS 참어머님의 연설은 다음과 같다.

“오늘 내가 왜 과학자 여러분들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천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류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과학은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산물로 인간 생존을 위협하고 천지만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당장 오늘 필요한 것만 연구하자고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향대로, 순환법칙을 따라가게 되면 공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문명은 많은 면에서 공해를 낳았습니다. 내가 과학자 대회를 부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의 존속을 위협하는 일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첫 번째 ICUS는 1972년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그 후 2년은 일본 도쿄와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그 후 6년 동안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열렸다. 1981년 처음으로 ICUS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1998년 7년간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는 1991년, 1992년, 1997년, 2000년 개최되었다. 참어머님께서 2017년 ICUS를 부활시켰고, 주동문 박사를 효정국제과학통일재단 회장으로 임명하고 ICUS를 그 조직 아래에 두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2021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천주성흔 6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22년 4월 13일~14일 양일간 제28차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